조선이공대, 지역 고교생 취업박람회 후원

조선이공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지역 고등학생들의 실질적인 취업 준비를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실무 중심 고용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사진)

조선이공대는 지난달 29~30일까지 열린 '동일미래과학고 2025:DO 취업박람회'를 후원하고, 고등학생 대상 맞춤형 부스를 운영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동일미래과학고등학교 주최로, 고용노동부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조선이공대는 현장에서 △면접 메이크업 클래스 △면접 스타일링룸(의상 대여) △이력서 사진 촬영 스튜디오 등 3개 부스를 열고, 뷰티아트과 재학생들과 함께 실전 중심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또한 전문 컨설턴트가 참여한 1:1 진로·취업 컨설팅도 함께 진행돼 학생 개개인의 직무 분석과 전략 수립을 도왔다.

최동환 기자

광주교통공사, 서울 신림선 관제 운영 '성료'

광주도시철도가 4년 동안의 신림선 관제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우수한 기술 역량을 대외적으로 입증했다.(사진)

광주교통공사는 최근 로템SRS를 대상으로한 기술력 전수, 인력 파견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서울 신림선 경전철 운영·유지보수 사업'을 안정적으로 마쳤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서울 신림선 경전철은 지난 2022년 5월 개통 이후'여의도 샛강역'에서'관악산역'까지 총연장 7.8㎞의 구간을 무인운전 시스템으로 운행하고 있으며, 공사는 개통 전후 18명의 직원을 현장에 파견해 5월 말까지 관제 운영과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했다. 신림선은 현재 건설 중인 광주도시철도 2호선과 동일한 고무차륜·무인운전 방식이어서, 공사는 이번 성공적인 경험이 추후 2호선 운영과 신입사원 교육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의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상아 기자

광주경제일자리재단,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약속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 제21대 대통령선거 기간 동안 근로자의 참정권을 보장한다고 약속했다.(사진)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 지난달 29일 재단 1층 로비에서 '투표시간 보장 약속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근로자가 사전투표일(29~30일) 또는 본투표일(6월3일)에 자유롭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고용주의 투표시간 보장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다짐을 공식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은행 센터장과 이기성 광주소상공인엽합회장이 입주기업들과 함께 참여해 "투표는 권리이자 의무이며,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모든 직원이 불이익 없이 투표할 수 있는 근무 환경 조성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행사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투표시간을 보장받지 못해 권리 행사가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안내와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상아 기자

광주청년센터, 청년정책 서포터즈 1기 발대

광주청년센터(센터장 김태진)는 지난달 29일 '청년정책 서포터즈 1기'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 시작을 알렸다.(사진)

광주 청년정책 서포터즈는 청년정책을 청년의 시선에서 바라보고, 이를 친근하게 알리는 콘텐츠를 직접 기획·제작해 확산하는 활동을 통해 청년과 정책을 연결하는 다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1기 모집에서는 총 58명이 지원해 5.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이 중최종 10명(블로그 분야 8명, 영상 분야 2명)이 선발됐다.

선발된 서포터즈는 오는 12월까지 약 7개월간 청년이 이용할 수 있는 정책사업과 자율공간, 프로그램 등을 주제로 블로그 및 영상 콘텐츠 제작을 통한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최권범 기자

전남대병원 "119안심콜 서비스 등록하세요"

전남대학교병원이 지난달 27일 병원 1·2·6·7동 1층에서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 구축사업인 중증응급질환 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119안심콜 서비스' 등록 캠페인을 펼쳤다.(사진)

2일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이날 캠페인은 김광석 공공부원장, 윤현주 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 공공의료협력팀 직원을 비롯해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 광주 5개구 소방서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자·보호자·내원객을 대상으로 신고 요령 등이 담긴 홍보물과 손톱깎이 세트를 배포했다.

'119안심콜 서비스'는 응급상황이 발생돼 119로 신고했을 때 사전 등록된 환자의 질병과 부가정보 등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출동, 응급환자의 맞춤형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진료가 가능한 구급서비스다. 또한 환자 보호자에게도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병원 이송내용 등을 공유할 수 있다.

노병하 기자

동신대, 주철환 교수 초청 'NEXT전남-나주 상상포럼'

동신대학교는 지난달 29일 오전 동신대 혁신융합캠퍼스 대강당에서 주철환 아주대 교수를 초청해 'NEXT전남-나주 상상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사진)

MBC 일요일 일요일 밤에, 대학가요제, 토요일 토요일은 즐거워 등 대한민국 예능의 흐름을 이끈 원조 스타PD 주 교수는 이날 "재미있게 살고, 의미있게 죽자"를 주제로 음악과 인문학이 결합된 강연을 통해 삶에 대한 철학을 전했다. 행사에는 이주희 총장을 비롯해 교직원, 나주시의회 의원, 혁신도시 공공기관 관계자, 시민 등 15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주 교수는 자신을 '음악 채집가'라고 소개하며 서태지의 '난 알아요', 김광석, 김민기의 음악 등을 예로 들어 "자신을 아는 것이 삶의 출발"이며 "예술은 짧은 인생을 감동적으로 바꾸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Why so serious?"라는 질문과 함께 "그럴 수도 있다, 그러려니 하자, 그러거나 말거나"라는 태도를 제안하며 "감사는 사랑과 같고, 감사하는 마음이 오늘과 내일의 행복을 만든다"고 덧붙였다.

최동환 기자

광주 인성고, 스웨덴 의원 초청 특별강연

광주인성고등학교(교장 이경기)는 지난달 28일 스웨덴 5선 국회의원 올레 토렐(Olle Thorell)을 초청해 '설득과 화합의 스웨덴 정치에서 배운다!'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열었다.(사진)

이날 강연에서 토렐 의원은 스웨덴 정치의 연합과 타협 문화, 시민 참여의 중요성,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정치적 책임 등에 대해 학생들과 진솔하게 소통했다.

특히 다양한 정당이 공존하는 연립정부 체제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실질적인 사례들은 학생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광주인성고는 "이번 강연을 통해 학생들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이해하고, 타인의 생각을 존중하며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힘을 기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권범 기자

북부 의용소방대, 사전투표소 '예방 순찰'

광주 북부소방 의용소방대는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북구 관내 사전투표소에 대한 예방 순찰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사진)

예방순찰활동은 북부소방 의용소방대원 188명이 동원돼, 투표소 주변 화재위험 요소 사전제거 및 유사시 초기 조치와 더불어 거동 불편 투표자 이동을 돕는 등 북구 주민들의 안전한 투표를 위해 이뤄졌다.

또한 오는 3일 치러질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일에도 예방 순찰을 실시할 방침이다.

채덕현 북부소방 119재난대응과장은 "지역의 안전 문화를 선도하는 조직답게 관내 주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소방관서의 업무에 많은 지원과 보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정승우 기자

대한적십자사 광전지사, 동행 성장 프로젝트 성료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는 지난달 28일 전남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자립준비청년대상 혹서기 대비 물품 전달식을 가졌다고 2일 밝혔다.(사진)

'손잡고 스텝업'은 보호자가 없는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경제, 생활, 문화·정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실질적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에서 추진하는 동행성장프로젝트이다.

지난달 21일에도 가정의 달을 맞이해 전남 지역 청년 50명에게 선물꾸러미가 전달됐으며 하반기에도 학습지원, 장학금 지급, 제빵봉사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립준비청년 대상 맞춤형 지원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정승우 기자